

정읍 도시 중심지별 자족력 높인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1도심 4지역 중심 2특화 핵’ 재편 시민 의견 수렴 등 거쳐 연말 확정

정읍시가 산업의 발달, 주거환경의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어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점이 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또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시민중심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해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간구조 재편을 내용을 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쟁력 강화와 중심지별 자족성 마련을 목표로 ‘1도심 4지역 중심 2특화 핵’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재편해 생활권별 발전방향과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20일 정읍시청에서 열린 ‘2040년 정읍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주민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공청회는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 및 시민대표의 지명토론, 시민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대 김현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북대 장태연 교수, 원광대 이경찬 교수, 전북연구원 이성재 부장, 삼오기술사 박종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도시과에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12월까지 전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전북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내장산 관광 자원화 등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북도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 발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취약층 아동·청소년 방학중 급식 지원

초·중·고 849명 대상 급식카드 발급...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정읍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급식지원에 나선다.

정읍시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 기간, 관내 초등학교 287명, 중학생 249명, 고등학생 306명, 기타 7명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849명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급식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등의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청소년이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사망이나 기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가 있거나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등의 이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급식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급식카드를 발급, 이를 이용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8000원 상당의 1인·1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급식카드는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급식신청서, 소득기준 확인서류, 결식우려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시 신청에 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영양이 있는 급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정읍을 이끌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시내권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편

단독주택·상가지역 분리 배출 요일제... 연말까지 제도기간

남원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 회수율 및 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 증대를 위해 시내권 단독주택·상가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개편한다.

대상지역은 시내권 7개 동지역으로 기존 음식물 수거요일을 기준으로 월·수·금 수거지역과 화·목·토 수거지역으로 나눠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일반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같은 요일에 수거하게 되며 투명페트병 수거율을 증대하기 위한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를 함께 시행한다.

예를 들어 기존 음식물 수거요일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인 지역인 경우 음식물 쓰레기, 일반(종량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모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수거하되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금요일

일은 투명페트병만 수거(기타 재활용품은 월요일, 수요일 수거) 하게 된다.

남원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제도기간 운영을 개편한다.

또 수거 요일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리플릿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소식지, 시청 sns를 통해서도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시 환경과 관계자는 “시행 초기 예상되는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원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영·유아 독서습관 키우기

남원교육문화회관, 9월14일까지 ‘내 생애 첫 책’ 운영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생애 초기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2023년 내 생애 첫 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유아 대상 맞춤형 추천 도서를 제공해 생애 초기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책을 매개로 영·유아와 부모의 유대 관계 형성 및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원에 거주하는 0-78개월 영유아의 보호자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연령 단계별(1-3단계)로 선착순 100명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책 꾸러미 배부,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책 놀이 방법을 배우고 독서

를 통한 소통과 교감 능력을 배우는 ▲영·유아 가족과 함께하는 책놀이 등 총 2개 프로그램이 있다.

책 꾸러미 배부는 오는 31일부터 남원교육문화회관 2층 어린이자료실에 증명서류 지참,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책놀이 프로그램은 남원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lib.jibe.go.kr/nec)에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수진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은 “이번 내 생애 첫 책을 통해 부모·자녀 간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맺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5만 인구 사수”

인구 소멸 대응 ‘인구정책팀’ 신설 결혼·출산·보육·주거 맞춤 지원

고창군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지원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창군은 앞서 열린 ‘인구 감소 대책회의’에서 인구정책을 총괄 지원할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해 인구정책팀을 꾸렸다.

고창의 인구는 국민 총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 6월말을 기준해 5만1994명으로 지난 20년간 29.4%가 줄었다.

인구정책팀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결혼·출산·보육·주거 등 종합적인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고 고창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구정책팀을 통해 일자리,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복지로 이어지는 생애 전반에 걸친 선순환 지원책을 마련해 거리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에스비푸드, 고창에 260억원 투자



고추종합유통센터 인수

고창군이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주)에스비푸드(대표 김병수)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협약에 따라 고창 운영 효율성이 떨어졌던 고창고추종합유통센터가 새로운 주인을 맞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투자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장, 에스비푸드 김병수 대표를 비롯한 기업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에스비푸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올리브고당과 물엿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12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년간 총 26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70여명의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베타아밀라제 원료인 고구마를 연간 800톤, 쌀조청 및 쌀올리고당 원료인 쌀 연간 1000톤을 지역에서 직접 구매해 제조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이기원 지음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